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1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KBS 후원 특별세션

팬데믹과 젠더: 포용과 연대의 해법 찾기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공영방송, 공영방송의 미래

일시 : 2021년 11월 6일(토)

장소 : 센터포인트 광화문, 유튜브 중계

주최/주관 : (사)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후원 : KBS  한국방송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1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KBS 후원 특별세션

제2세션 (14:45~16:05)

사회 : 김유정(수원대)

발표	공영방송사의 조직문화와 젠더 이슈 발표 : 이종임(경희대)
발표	공영방송, 스포츠, 젠더: 20~30대 여성 시청자들의 이용을 중심으로 발표: 정사강(이화여대)
종합토론	강보라(연세대) 서영주(KBS성평등센터) 오예진(연합뉴스) 정영희(고려대)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1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ROOM A (유튜브 생중계)

KBS 후원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공영방송, 공영방송의 미래

공영방송사의 조직문화와 젠더 이슈

이종임(경희대)



공영방송사의 조직문화와 젠더 이슈¹⁾ - 여성 프로듀서의 조직에 대한 인식과 종사자로서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이종임(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로 유튜브 등의 플랫폼이 강세라고는 하지만, 플랫폼을 채우는 콘텐츠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제작한 콘텐츠도 적지 않다. 1990년대 음악 콘텐츠의 재소환을 불러온 ‘온라인 탑골 공원’ 열풍부터 과거 인기 드라마까지 유튜브 이용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와 같이 지상파 방송사는 시청자/이용자들의 일상생활에 즐거움을 주는 콘텐츠 생산뿐만 아니라 2017년 미투 운동을 계기로 한국사회 뿌리 깊이 박힌 가부장제, 성차별 문제에 대한 취재와 진단,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질병재난에 대한 국내외 상황을 취재, 보도하는 저널리즘적 기능까지, 불안감과 예측불가능성에 휩싸인 시청자/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로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방송콘텐츠 환경의 디지털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의 확장, 이용자들의 취향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그 동안 지상파 방송사는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 노력이 이용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어떤 지점까지 와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다. 공영방송사의 저널리즘적 기능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크다고는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향유권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드라마와 예능 등의 콘텐츠도 글로벌 OTT플랫폼과의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겹쳐지면서 ‘시장성’은 상업방송의 영역이라고 하기에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공영방송사로서의 책무, 수신료의 가치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중의 하나로 그 동안 미뤄왔던 조직 내 성별구조와 유연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구축되어 있는지 내부적 점검 역시 중요하다.

해외의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스템 구축과 제작 매뉴얼, 제작에 참여하는 생산자의 노동환경 등이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영방송사로서

1) 진행 중인 논문입니다. 만약 인용이 필요한 경우 연구자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happydayjin@naver.com

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이고 원론적 논의를 반복해왔을 뿐, 방송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환경에 논의는 많지 않다. 드라마 제작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최근 몇 년 전 등장했지만, 외주제작 시스템의 특성이 갖는 갈등과 현황 분석에 머물렀고,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정체성 논의도 적지 않다(송용한·이종임·오현주, 2019; 이종구, 2009; 장희은·노성철, 2019). 사회적 사건으로서의 노동환경이나 젠더 이슈는 뉴스/시사프로그램에서 자주 언급되지만, 정작 방송사 조직 내의 문제를 다룬 논의는 많지 않다. 특히, KBS 조직내의 젠더 이슈, 여성인력이 경험하는 다중적 정체성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물론 공영방송사 조직 내부 문화나 생산자로서의 정체성(전문성), 뉴스 제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외압 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하지만 그에 비해 남성 중심의 노동환경이 구축되면서 고착화된 성차별 문제,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인권교육이나 젠더 감수성의 중요성 등 성별화된 조직문화를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이제 막 시작한 상태다.

방송사 조직의 남성과 여성인력이 경험하는 노동환경과 조직문화는 어떻게?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국내 남녀의 취업비율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 논의에서 출발하자면, 통계청의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조사결과, 2017년 여성 고용률은 50.8%로 지속적 증가 추세로, 남녀 고용률 차이는 2003년 24.7%에서 2017년 20.4%까지 감소하였지만, 10년이 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감소 추세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지난 2017년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77.2%로 남성(72.7%)보다 4.5% 높은 것으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여성(45.7%)이 남성(53.6%)보다 7.9%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의사결정권을 가진 직위에는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낮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조직내의 의사결정권자 성비에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성평등한 근무환경과 제작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상징한다. 실제로 2017년에야 전세계에서 미투운동(Me Too Movement)²⁾이 일어나면서 젠더 정체성과 젠더감수성(gender sensibility, 性認知感受性)³⁾에 대한 논의도 이제 막 시작된 상태다. 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늦게 시작된 것에 비해 방송 산업이 만들어내는 대중문화의 영향력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많은 인력이 제작현장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지만, 노동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남성중심적 권력관계와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과거의 비판이 현재는 개선되었을까. 방송사의 조직문화가 젠더 차별적 특징이 강하다면, 방송이 표상하는 콘텐츠에도 조직의 문화가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다행이 KBS는 지난 몇 년 동안 문화다양성과 젠더 감수성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

2) 미투운동은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2017년 10월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을 폭로하고 비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해시태그(#MeToo)를 다는 것으로 대중화되었다.

France, Lisa Respers. "#MeToo: Social media flooded with personal stories of assault". CNN. 2017.10.16. <https://edition.cnn.com/2017/10/15/entertainment/me-too-twitter-alyssa-milano/index.html>.

3)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기까지의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

Dr. Jatinder Kumar Sharma.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Sensitisation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 Exploration in Philosophy of Mind".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Research*. 24 (90): 2016, 380-400. 참고할 것.

다. 시사/교양국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거리의 만찬>(2018-2020), <주문을 잊은 음식점>(2018), <다큐인사이트: 개그우먼, 윤여정, 국가대표>(2020-2021)와 같이 사회에 존재하지만 외면해왔던 문제들,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왔던 문제들을 다뤄왔다. 또한 2018년 출범한 KBS의 <성평등센터> 출범은 큰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만큼, 현재 KBS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진단과 성과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영방송사로서의 KBS가 공적 가치,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에서 정보생산과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프로그램 제작자/종사자로서의 정체성과 시사교양 프로그램 등 정보를 생산하는 방송사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무엇인지, 전문가로서의 여성이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시사교양국에서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사회에서 주목받고, 시청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사교양국에 종사하고 있는 프로듀서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도 함께 진행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방송사 조직문화의 탐구, 성평등적 관점이 반영된 콘텐츠 생산을 위해서는 콘텐츠 생산자들의 인식과 조직의 성차별적 구조의 개선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직문화는 조직이론의 발달과정 중 공식적 조직에서 비공식적 요소 및 인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인간관계론(Human&Relations)의 등장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양종해, 2004, 155쪽). 조직문화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의 총칭으로서 조직구성원에게 행동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나 남성 동료들의 반감 등 부정적 경험에 더 자주 노출된다거나 남성들의 성희롱이 더욱 빈번해지고 강도 또한 심화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또한 여성 정규직 및 핵심인력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들의 일가족 양립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민현주, 2010).

이와 달리 짐머(Zimmer, 1988)는 여성의 양적 증대가 조직의 문화를 바꾼다는 의견에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관계는 ‘숫자’보다 ‘권력관계’가 더욱 크게 작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성을 노동시장에 다수 진입시키면 그들이 다른 여성들의 역할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성취열망을 고취시키는 신호가 기대되리라는 기대를 전제하지만, 단순히 여성비율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들의 조직 내 지위, 지원수준, 고용안정성 등 다른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사의 조직 내 업무추진과 역할론에 대한 논의는 기자로서의 역할론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왔다. 여성기자의 수가 남성기자의 수보다 적기 때문에, 젠더차별적 가치관이 뉴스에 반영된다는 주장도 있다. 70여개국에서 1만6천 여 개의 뉴스를 분석한 결과, 여성 저널리스트 작성 뉴스 중 24%가 여성 대상 뉴스인 반면, 남성 저널리스트 작성 뉴스에서는 18%만이 여성 대상 뉴스인 것으로 나타났다(Spears & Seydegart, 2001).

국내 방송사의 업종 별 성비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지상파방송 부문에서 방송직 종사자는 기자는 2,473명, PD는 2,472명으로 나타났다. 아나운서 507명, 제작관련 인력은 2,342명, 기타 861명이다. 방송직 외 임원 108명, 경영직 1,675명, 기술직 2,106명, 연구직 112명, 영업/홍보직 829명, 기타 971명으로 나타났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1:86).

〈표 1〉 방송영상산업 업종별 및 고용형태별/성별 종사자 현황(2019)

업종	고용형태/성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종사자 수(명)	비중 (%)							
지상파방송	지상파방송 사업자	9,593	66.0	2,875	19.8	889	6.1	1,101	7.6	14,458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38	0.3	9	0.1	10	0.1	4	0.0	61
	↑ 소계	↑ 9,631	66.3	2,884	↑ 19.9	899	6.2	↑ 1,105	7.6	14,519
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3,388	72.6	1,051	22.5	75	1.6	73	1.6	4,587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55	1.2	19	0.4	2	0.1	0	0.0	76
	소계	3,443	73.8	1,070	22.9	77	1.7	73	1.6	4,663
위성방송	일반위성방송 사업자	292	77.7	75	19.9	3	0.8	6	1.6	376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8,923	51.9	6,367	37.1	697	4.1	1,194	6.9	17,181
인터넷 영상물 제공업	인터넷프로토콜TV (IPTV)	582	71.5	210	25.8	12	1.5	10	1.2	814
방송영상물제작업	방송영상독립제작사	4,595	34.2	3,633	27.0	2,835	21.1	2,390	17.8	13,453
합계		27,466	53.8	14,239	27.9	4,523	8.9	4,778	9.4	51,006

※ 출처: 〈2020 방송영상 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86쪽.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2019 언론인 조사>결과에서도 국장/국장대우는 남성은 9.8%, 여성은 0.6%, 부국장/부국장대우의 경우 남성은 8.5%, 여성은 1.5%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9:55). 조직의 특성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성별 비율인데, 현재 국내 언론사에 종사하는 남녀구성원의 성비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조직구성 환경도 다르지 않다. 매년 여성취업의 비율 증가의 의미를 언론에서 보도하지만,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성별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례로 기업평가사이트CEO스코어가 200개 상장사의 등기임원 1,441명을 조사한 결과 여성 등기임원은 65명으로 전체의 4.5%로 집계되었고, 단 1명도 없는 기업은 146곳으로 전체의 7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포브스 선정 200대 기업 중 여성 등기임원 수는 전체 2,435명 가운데 730명으로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21.3.7.).⁴⁾

성평등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성별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 지금의 상황에서, 언론사에서 뉴스를 생산하는 여성들은 남성중심의 네트워크에서 배제되기 쉬우며, 취업이나 승진의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롭기는 더욱더 어렵다는 연구결과(김균·이은주·장은미, 2008; 김세은·홍남희, 2019; 홍지아, 2016)가 지금의 언론사 내부 환경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물론 과거에 비해 언론사의 여성인력의 비율은 증가했다. 하지만 그렇게 증가한 여성 언론인 특히 여성기자의 업무환경, 취재원과 편집국과의 관계, 조직 내 구성원의 젠더 감수성 등의 변화도 함께 논의해야만 기자로서의 여성인력 증가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언론사 종사자들이 생산하는 정보는 대중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그 조직의 성비, 주로 사용하는 언어, 남성 동료들과 여성 동료들과의 갈등, 의사결정권자의 성비 등은 결국 콘텐츠에서 재현되는 세계와 가치관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근거이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여성 인력의 증가라는 양적 변화뿐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여성 전문인력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청자가 기대하는 공영방송사의 공적 가치,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⁵⁾

(2) 정치적·조직적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 놓인 KBS

한국사회에서 ‘공영방송’, ‘공영방송사’는 진중한 의미를 내포한다. 시청자들의 수신료가 주요 재원인데다 오랜기간 시청자들에게 뉴스정보전달이라는 전통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공

4) 지난 2019년 4월 4일 <신문의 날> 행사에 참석한 국내 신문사의 간부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한국사회에서 간부급 인사 중 여성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지만, 이를 본 외신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청와대 영문 트윗 계정(@TheBlueHouseENG)을 리트윗하면서 남긴 글은 “Look at all those women!”이었다. 여성간부가 한 명도 없는 신문들의 행사를 꼬집은 것이다. 2019년 4월 15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도 참석한 언론인 26인 중 여성은 1명뿐이었다(미디어오늘, 2019.4.6.).

5) 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KBS의 시사교양국의 프로듀서는 총 171명이며, 이중 임원은 29명, 임원 중 여성은 8명이다.

적가치'를 생산해야 하는 공영방송사는 한국사회에서의 정치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청자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러는 사이 한국공영방송사인 KBS는 국가의 간섭과 지원 속에서 출입처에 의존한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결정과 입장 발표를 전달하는데 주력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최창식·정영권·정철우·채백, 2009). 여기에 미디어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미디어의 하향평준화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범람, 미디어 간 경쟁 심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빠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공영방송사는 종합편성채널에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케이블채널에 대해서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한 인기를 넘겨주게 되었다. 2011년 종합편성채널의 등장과 케이블 채널 그리고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까지 가세하면서, 변화하는 미디어생태계 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하지 못했다. 특히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 보도였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쓰기만 했던 언론사들은 사건 발생 초기 '오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고, 언론을 신뢰하지 못했던 시민들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게 만들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이어진 KBS, MBC, YTN 등의 사장단 교체 등은 언론보도를 책임지는 방송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많은 기대와 요구를 분출하게 했다. 공영방송사의 파업, 이사회 일부 이사의 교체와 이어진 사장의 해임/선임 과정에 일관되게 나왔던 요구는 지난 정권 기간 누적되어 온 보도, 편성, 제작 및 인사의 문제를 폭로하고 시민의 지지를 통해 이사회의 재구성과 사장 교체를 목표로 삼았다.(프레스리안, 2019.7.1.). 인사교체 과정에서 특히, KBS는 사장선임에 국민참여방식과 후보의 공개 정책 설명회 등을 도입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 요구와 대안마련에 대한 시민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요 경영진의 교체 이후 과연 현재 공영방송사가 지난 정권 기간 누적되어온 문제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보생산을 할 수 있는 방송사 조직으로 거듭난 것인지, 시민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주요한 역할로 제시되어왔던 '공적 가치'는 조직구성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프로그램 제작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진단도 꾸준히 있었다. 손승혜·김은미(2004)는 지상파 방송사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 인력이 그들의 경력과 조직에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이니지를 전문화와 조직사회화 두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프로듀서 집단의 경우, 여성들의 조직 내 적응이 남성에게 비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백미숙(2012)은 1970년대 텔레비전 교양 피디의 직무와 직업 정체성을 연구했는데, KBS 교양 피디들은 공무원으로부터의 구별짓기와 상업방송과의 구별짓기라는 두 가지 전략으로 전문 방송인으로서 직업 정체성을 형성했지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적 실천 규범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 머물렀고, 방송의 공공적 책무는 상업방송과 대비한 소극적인 정당화에 그치고 있었다고 보았다. 어쩌면 공영방송사의 정체성 형성의 시작이었던 시기에 형성된 틀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오현(2007)은 KBS 시사 프로그램인 <인물현대사>를 대상으로 방송사 조직 내외적 권력 관계의 변화가 프로그램 제작환경에 어

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이 시사 프로그램의 출현과 위축은 크게는 정치적 탈권위주의화와 진보 정권 집권 등 조직 외부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조직 내부 차원에서는 경영진과 노동조합, 공채기수 간의 역학관계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방송사의 전문가로서의 프로듀서의 역할을 조사한 연구는 기자의 역할과 노동조건에 대한 논의에 비해 많지 않다. 기자의 경우 조직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성인력의 유입만 진행된 언론사는 오랜시간 언론사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역할, 직업적 윤리의식 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여성기자들은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뿐만 아니라 남성중심적 조직문화라는 언론사 조직의 특성은 또 다른 전근대적 조직문화 속에서 직업과 삶을 지속하도록 만든다는 논의가 주를 이룬다. 무엇보다 입사, 부서배치, 승진, 뉴스생산 등 과정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관행들이 신문사 내에서 작동한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산업화 시기 이후 여성 언론인의 경력 이동을 연구한 최이숙(2009)에 따르면, 결혼 후 여성기자의 직업 활동을 가로막은 각종 관행 및 복지정책의 부재, 기혼 직업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여성들이 언론계에 머무는 기간은 남성들에 비해 짧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비판이 지속되고 여성 기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형식적으로는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입사과정과 부서 배치에서 여성에 대한 새로운 진입 장벽이 만들어지기도 한다(김균·이은주·장은미, 2008; 조수선·정선호, 2017; 이석호·이오현, 2019). 직무수행과정에서 여성 기자들은 극심한 정서적 고갈을 느끼고 직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가운데 직업 효능감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분석한 조수선·정선호(2017)는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제안, 회사와 개인의 가치 불일치, 업무 실적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부재, 의견반영 기회 부재, 결정 권한 부재, 업무협조 어려움 등 직무수행과정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정재민·김영주(2011)는 가정과 직장 간의 역할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여성임원일지라도 여성 임원이 소수로 존재하며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조수선·정선호, 2017).

(1) 집단적 가치와 종사자의 정체성

지난 몇 년 동안 KBS는 비판받았던 시사프로그램이 소재와 제작방식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2019년에는 KBS 메인 뉴스인 <뉴스9>에 이소정 KBS 기자가 진행을 시작했고, 같은 해 KBS 라디오의 경우, <정용실의 뉴스브런치>를 통해 여성 관련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라디오 출연자들의 변화도 꾀했다. 물론 여성이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결정이 뉴스가 되는 우리사회의 현주소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했다. 그 외에 시사교양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

도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거리의 만찬>(2018-2020), <주문을 잊은 음식점>(2018), <다큐인사이트: 개그우먼, 윤여정, 국가대표>(2020-2021) <모던코리아>와 같이 여성의 서사, 개인의 서사, 당사자의 서사 등 사회적 고정관념을 벗어나 여성, 개인, 그리고 전문성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거리의 만찬>은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문제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보여주었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성 진행자들의 참여도 큰 공감을 받았다. 일례로 복지투쟁을 해온 KTX 여성해고 승무원, 임신중단을 경험한 여성, 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어린 환자들을 간병하는 엄마들 등을 조명했다. <주문을 잊은 음식점>은 경증 치매를 앓는 노인 5명이 음식점을 차리고 영업에 나서는 내용으로 제작되었는데, 치매라는 질병을 어둡게 조명하거나 노인을 희화화하던 기존의 미디어 속 재현방식을 반복적 방식을 벗어난 구성을 보여주었다. <다큐인사이트> 역시 개그우먼, 국가대표, 윤여정 등 오랜기간 여성을 다루던 미디어 관행, 기계적 문법들을 벗어나 성평등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여성들을 인터뷰하였고, 프로그램 방송 이후 대중적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그 외에 탐사보도프로그램으로서의 <추적60분>이 종영했지만, <시사직격>, <시사기획 창>과 같은 프로그램 편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달라진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해 KBS도 기존의 관행을 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직 내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시사교양국 여성 피디 3인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임영호(2015)는 방송사의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조직 외부의 권력 역학관계를 통해 프로그램 생산과정의 특징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한다. 고프만(Goffman, 1959)의 설명 즉, 연구자의 관찰은 어디까지나 현장의 행위자가 외부인인 연구자에게 보여주는 ‘자기표현(self-presentation)’에 가까운 것이며, 이는 반드시 관찰 대상인 생산자가 연구자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축소, 은폐, 위장한다는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러한 보여주기적 외부인에 대한 생산자의 진솔일 뿐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생산자가 자기 자신의 직업 활동에 대해 의미부여하는 방식,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진솔의 성격도 띠기 때문에 재맥락화와 설명해석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임영호, 2015:19-20). 이러한 논의를 고려해 최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설명해석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이후 논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와 이메일 인터뷰도 진행했다. 인터뷰는 최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구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경청하는 방식을 취했다. 인터뷰는 2021년 10월에 진행하였으며,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시사교양국의 피디 지원 이유, 시사교양국의 프로그램 제작 과정과 데스크와의 관계, 성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KBS 내의 성인지감수성과 성평등센터의 역할, KBS의 파업과 미투운동 이전과 이후 제작환경의 변화, KBS 시사 교양국 피디로서의 정체성과 역할론 등이다.

〈표 2〉 인터뷰 참여자

인터뷰 참여자	근무기간	근무부서
A	10년 이상	시사교양
B	10년 미만	시사교양
C	10년 미만	시사교양

(2) 인터뷰 결과

① 전문성을 증명해야 하는 여성 인력

강진숙·이광우(2012)는 제작진들이 방송국이라는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제작자의 주관을 유지한 채 새로운 아이템과 형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지닌 주체들이었다고 설명한다. 문화생산물을 선별하고 가치판단의 기준과 해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제작진을 문화생산자와 대중사이를 매개하는 문화매개자라 규정했다. 이오현(2005)은 아이템 선정 과정이 피디 스스로의 성향체계를 바탕으로 부장, 차장, 구성작가, 자문위원 등과의 상호작용, 프로그램에 비판적인 내외부의 시선, 시청자의 흥미, 영상자료의 확보 가능성, 제작기간, 방영시기 등의 고려를 통해 결정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연예가 중계〉 생산자 연구를 통해 살펴본 연정모·김영찬(2008)은 피디, 작가, VJ, FD 등 생산자들의 이해타산적인 성찰성이 마찰하면서, 텍스트의 전형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연예정보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박인규(2010)는 KBS 시사 프로그램의 침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진행했는데, 시사 프로그램에 관한 경영진의 부정적 인식과 인사권과 편성권을 통한 통제를 통해 정권에 불리하거나 정권이 불편해야 할 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홍경수(2012)는 이명박 정권 시기 KBS의 제작체계 변화가 피디들의 전문직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였는데, 한국 공영방송의 피디 전문직주의는 다른 직업집단과의 차별화가 아닌 정치체제와의 차별화, 즉 자율성 투쟁에 과도한 힘을 실으면서 정작 중요한 전문성을 내면화하는데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지나친 정치화로 인해 제작 관행이나 윤리 등 전문직 규범을 내면화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KBS의 피디가 이야기하는 피디의 역할, KBS 내의 제작 프로과정, 그리고 조직문화는 어떨까? 조직문화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비공식적 네트워크다. 비공식 네트워크는 조직 내의 비정상적인 정보흐름과 조직내 소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혹은 고급정보의 근원이자 공식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보조장치, 경력개발의 토대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언급한다(Phalen, 1996; Powell, 1990). 대체적으로 비공식 네트워크는 주로 남성들의 일과 생활경험, 성적 성향에 편향되어 있어 처음부터 여성들이 끼어들기 어렵다는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지금은 회사 내에 여성 입사률이 높아졌지만 제가 입사했을때는 제작현장에서 일을 하는 여성 피디가 소수였어요. 예를 들면, 라디오피디는 꾸준히 입사를 했는데요. 시사교양쪽은 적었어요. 그러니까 롤모델도 찾기 힘들었고, 상의할 선배는 더더욱 없었죠.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남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각 부서별 여성 간 비교를 하곤 했죠. 여성 간 경쟁을 부추기는 평판이 항상 존재했어요”(A)

데스크의 경우 1990년대 부장급 여성은 2명 정도, 2000년대 그리고 2008년 이후 여성인력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B)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으로 멘토링을 들 수 있다. 조직에서 이뤄지는 학습은 공식적인 것 뿐만 아니라 직장 선후배 간에 또는 동료들 간에 조언이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실제조직에서 구성원들이 학습하는 행위나 지식들은 이렇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가정에서 습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신참자에게 영향을 주는 직위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멘토라고 할 수 있다. 방송사와 같은 미디어 조직에서 동료 및 선배들의 행위와 그 행위 결과들을 관찰함으로써 조직에서 요구하는 행위를 배우게 되는 과정은 지속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수가 적은 방송사 조직 내에서 신입 여성종사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동성의 역할모델 내지 멘토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러한 멘토의 부재는 여성들에게 조언과 도움의 중요한 소스를 박탈함으로써 여성들을 불리한 위치에 놓고 승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Phaken, 2000;윤석민·이철주, 2003:181).

프로그램을 처음 제작할 때, 제가 다루기 어려운 아이템 출연자 섭외나 인터뷰에 성공을 하면, ‘니가 여자라서 성공한 거야’, 그리고 실패를 하면, ‘니가 여자라서 실패한 거야’라는 얘기를 들곤 했어요. 그 당시에는 반박도 하지 못했죠. 당시에는 그게 잘못된 발언이고 남성중심적 문화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A)

힘들게 제작현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와서 그런지, 제작현장에서 스태프분들과 친하게 지내지도 못했어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사무적으로 하고 더 꼼꼼하게 일을 했죠. 가끔 후배들한테서 선배는 ‘왜 그렇게 여유가 없냐’는 말을 듣기도 해요(A)

시사교양이나 뉴스 제작자 혹은 전문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남성중심의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취재원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미 ‘여성’, ‘젊은 여성’이라는 대상화가 먼저 이뤄지고, 그 이후에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는 방식은 입사 연차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다.

“취재하러 나가면 작가냐고 많이 물어보죠. 오해를 많이 받아요.”(B)

“지방 회사에 간부급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자신의 직급에 비해 나이 어린 여성 피디가 취재를 하러 오니까, 약간 무시당했던 경험도 있어요”(C)

공적기구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진 고위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주로 남성이라는 현실을 반영할 때 뉴스에 언급되는 주요 취재원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특성이 PD로서의 전문성을 성별로 구분하는 시각이 계속되고 있다는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홍지아(2016)의 논의처럼 공식적 취재원을 통해 얻는 정보에 뉴스 가치를 부여하는 언론사의 보도 관행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남성의 활동이나 발언을 주로 보도함으로써 여성의 존재감과 사회의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기여도를 축소 재현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KBS 파업과 미투운동, 그리고 세대교체

Ofcom(2016)의 2016년 보고서에는 공영방송 서비스의 특성에 ‘신뢰’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상업 미디어 채널, 인터넷 미디어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신뢰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의 공영방송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구축된 정치적 종속이 2017년 파업을 통해 새롭게 공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방송사의 조직문화가 구축될 기회를 얻었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구축된 방송사 구성원의 ‘집단적 가치’가 쉽게 바뀌거나 전환되기 어렵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KBS가 MBC와 파업을 시작했던 시기에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이미 많은 미디어 채널을 자유자재로 선택해 활용하던 시민들은 한국의 공영방송이 결정한 파업의 중요성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생산했던 뉴스의 편향성이나 경직성으로 인한 시민들의 신뢰도 하락과 함께 종합편성 채널이나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정보접근이 가능해지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기대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KBS 파업은 공영방송사로서 KBS가 가져왔던 취재관행,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공영방송사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 시청자가 KBS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고민하게 만들었다.

2017년 파업이 조직문화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정부 당시의 탄핵정국도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하게 만들었죠. 2008년 이후 입사자들끼리 토론회를 구성하기도 했어요. 공영방송사의 역할이나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요. 파업 전에 젠더에 대한 인식은 거의 기초적 수준이었죠. 파업이후에는 상황이 변했던 탓인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고민하

고 논의할 수 있었죠. 물론 미투운동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B)

요즘은 옛날이랑 정말 크게 다르죠. 말도 조심하고, 여성인력도 더 늘어났고.(A)

피디로서의 직업 만족도는 높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성해 공유하면 같이 토론할 수 있고, 그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주제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B)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부서는 젠더 관련 얘기는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C)

인터뷰 참여자들은 KBS 내 조직문화가 포용성(Inclusion)을 띠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 KBS에서 제작한 시사교양프로그램이 외부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피디와 기자분야에 여성의 증가도 제작환경에 영향을 미쳤고, 파업과 미투 운동 이후의 내부 성찰과 성인지감수성의 중요성 등이 찬반을 떠나 조직 내에서 공유되고 있었고 보았다.

예전만큼 회식을 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니에요. 물론 코로나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 이전부터 전체 회식 자리는 크게 줄었습니다. 후배들을 보면, 개인의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A)

제작인력의 세대교체가 이뤄진 만큼 습관처럼 이뤄졌던 조직 구성원간의 관계 형성방식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이전부터, 비공식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회식' 문화는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이유는 조직의 하나의 목표를 위해 관계를 형성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방식이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전문성을 키우거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또 다른 시간을 갖는 '개인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공영방송사의 전문 피디로서의 역할과 공익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과 비공식적 네트워크로서의 회식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거리의 만찬> 진행자 교체문제를 가져왔던 김용민 사례와 <1박2일> 사건을 보면서 프로그램은 누구의 것인가, 고민하기도 했고...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의 갈등구조도 드러났죠.(B)

성평등센터가 만들어진 점은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KBS 내에서 성평등센터의 역할이 아직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느껴요. (C)

2018년 이후 신문사, 방송사 모두 관련 취재 방식, 언어표현, 취재 영상과 스튜디오 인터뷰 방식 등 뉴스 보도 방식의 변화를 고민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러한 고민이 반영된 조직의 변화가 이어졌다. 김세은·홍남희(2019)는 2018년 미투운동 보도에 있어서 여성이슈를 다루는 기자의 전문성을 분석하였는데, 언론사 내부의 시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차별, 언론사 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여성인력의 부족,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환경에서 속보 경쟁과 선정성 위주의 보도로 인해 젠더주의적 관점의 뉴스 생산의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김경희(1998)는 언론사 조직 내에서의 여성소외문제를 통해, ‘여성 소외’는 조직 차원과 취재 영역 모두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조직 차원에서의 여성소외는 남성적 유대 관계, 연성 뉴스에 대한 평가 절하, 여성 기자에 대한 정형화 문제, 취재 차원에서의 여성소외는 권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정보 수집, 비윤리적인 타협 문화,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전통적 여성관 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뉴스 생산에 있어 기자들이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뉴스가치부여와 관련한 관행, 취재원과 취재 경로 등 관행화된 채널을 이용하는 취재 관행, 이러한 것들로 모아진 뉴스 소재를 기사로 만드는 뉴스 구성 관행 등의 보도관행이 여성을 비롯한 특정 집단에 대한 반복적인 이미지 형성으로 나타났다. 뉴스 생산에서 여성 관련 주제, 여성 취재원의 가치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바꾸기 위해 언론사들 역시 조직내 변화를 시도했다.

KBS는 2018년 11월 <성평등센터>를 개소하였고, 2019년 4월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등이 담긴 성평등 기본 규정을 마련하였다. 비슷한 시기, 미투운동을 거치면서 언론사들은 젠더 이슈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을 했고, 여성주의적 시각, 여성인력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한겨레, 경향, 부산일보 등 젠더데스크를 설치했다. 서울신문은 노사 합의로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성평등위원회를 도입한데 이어 남녀 혐오나 담론 생산을 위한 젠더 연구소를 2019년 설치하였다. MBC는 노조 산하에 <성평등위원회>가 있으며, 2018년 2월 노사 간 단체협약 체결 때 모성 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만들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도 했다. SBS는 노사 합의로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성평등위원회를 도입하였다. 언론노조는 <성평등위원회>를 2020년 출범하였고, 성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보도를 위한 보도 가이드라인 제정하였고, 언론노조 산하 본부와 지부에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 취재원, 의사소통 구조, 기사 작성의 언어표현 등의 젠더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담은 <미디어를 위한 젠더균형가이드 Gender Balance for Media>의 번역서도 발간되었다.(미디어오늘, 2021.3.8.;미디어스, 2021.3.8.)⁶⁾

6) 세계신문협회(WAN) 성 평등 프로젝트의 일환인 위민인뉴스(WIN:Women in News)가 발간한 <미디어를 위한 젠더 균형 가이드>는 WAN 미디어개발부문 이사인 멜라니 워커(Melanie Walker) WIN 대표 인터뷰, 성차별 용어 및 성범죄 보도 시 유의할 점 등이 담겨있으며, 국내 번역서에는 그 외에도 권김현영 교수와의 좌담회, 한겨레 젠더데스크 1년 평가, 지난 1년 성평등위 성명, 한국기자협회 성폭력·성희롱 보도 가이드라인 등을 담았다. WAN은 1만8000개 간행물, 1만5,000개의 온라인 사이트, 120개국의 3,000여개 신문사 및 출판사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 WIN은 젠더 균형 가이드에서 언론이 여성을 평등하게 재현하지 못하고, 그들의

KBS의 <성평등센터>는 조직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 성평등연례보고서를 2019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성평등 현황을 임직원수, 임원 중 여성의 수, 보직자 중 여성의 비율, 구성원의 인식, 성평등 기본 규정 제정과 시행, 내외부 모니터링 의견 등을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직의 문화를 성평등이라는 시각에서 매년 자료를 조사해 평가하는 점은 장기적으로 KBS의 조직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KBS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역할의 수행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보인다.

외신에서는 폭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갈등이라고 표현하죠. 그만큼 젠더 인식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B)

KBS 내 제작피디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을 보고 실망했죠. (B)
선배들을 보면, 결혼/육아와 현장 제작피디를 같이 병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C)

인터뷰 내용을 놓고 보자면, 현재의 변화에 대한 진단은 자유롭게 젠더 관련 이야기를 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까지만의 '변화'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느끼는 조직의 변화는 조직내 구성원의 문제나 프로그램 출연자 관련 젠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크게 실망하고 있었다. 공영방송사로서의 뚜렷한 입장을 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문제를 대상화하는 것으로서의 젠더 이슈에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했지만, 조직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만족할만한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KBS 프로그램의 긍정적 변화로 자주 소환되었던 <거리의 만찬>이 진행자 교체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KBS 조직 내에서도 진행자 교체의 이유를 공감받지 못했고, 시청자들로부터는 더 큰 비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실망감은 크다고 답했다. 오랜시간 제작되고 있는 <1박2일> 출연자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하고 있었다.

③ 공영방송사의 제작피디로서의 정체성

강형철(2018)은 공영방송의 신뢰성은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와 구별성 높은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오래 지속되었을 때 쌓여진다고 설명한다. 오래된 신뢰의 역사를 만드는 기본 바탕은 정치적 독립과 재정적 독립을 보장하는 사회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기초는 제작종사자들의 프로페셔널리즘이 시민의 신뢰를 자산으로 압력과 통제에 저항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유지가

직업과 사회적 역할, 특성을 정형화한다면 젠더 불균형을 더욱 강화시키고 영원히 지속되게 될 것이므로, 젠더 균형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능했다. 쿵셱클만(Küng-Shankeleman, 2000)은 BBC의 창의력은 프로듀서 중심의 경영구조와 이데

김세은(2017)은 한국 언론에서 특종(scoop)의 개념은 내용적 차원(단독)과 시간적 차원(최초)이 뒤섞여 있는 특징을 주목하였다. 특히 한국의 뉴스 환경에서 ‘시간’을 중시하는 속보 경쟁으로, 내용적 측면의 장기 심층 보도나 저널리즘 가치를 갖는 특종이 경시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뉴스 생산에서 여성 관련 주제, 여성 취재원 가치를 경시하는 경향은 여성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갖는데(Entman, 1993), 남성에 비해 여성이 권력이 없고, 덜 중요하며,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게 하여(Zoch & Turk, 1998, p.772), 성차별(sexism)을 고착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 미투 운동(#Metoo) 보도에서도 한국 저널리즘의 관행이 또 적용되었다고 보았다. 또 ‘게이트키퍼’의 과정은 언론이 여성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존 가부장적 질서와 같은 관습적 주제, 표현, 내용에 반복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며, 게이트키퍼가 중년 남성 중심이라는 점은 뉴스 보도에서 여성이 양적, 질적으로 실제보다 더 적게 다뤄지는 ‘과소재현(under-representation)’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여성 문제가 다뤄진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지 않거나 전형적인 성별 스테레오타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고정되어 여성의 주변화(marginalization)를 야기한다는 것이다(김세은·김수아, 2007). 언론이 여성을 재현하는 방식이나 성범죄와 관련한 보도를 분석한 연구들은 관련 보도가 ‘가부장적 젠더 질서’에 반복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문제도 많은 연구들을 통해 계속 지적되어왔다(유선영, 1999; 김훈순, 2004; 홍지아, 2009). 하지만 최근 KBS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살펴본다면, 가부장적 질서의 전복을 꾀하고, 과거 역사를 통해 현재를 진단하는 등의 프로그램 피디들이 공영방송사의 피디로서의 역할, 여성주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 자발적 의지에 기반한 주제 선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공영방송사로서의 KBS가 공적 가치,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에서 정보생산과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프로그램 제작자/종사자로서의 정체성과 시사교양 프로그램 등 정보를 생산하는 방송사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무엇인지, 전문가로서의 여성이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미디어 조직의 인적 구성이 콘텐츠 제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텍스트(콘텐츠)생산이 이루어지는 생산단위는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내부의 사회적 관계 역시 외부의 거시적인 사회적 관계들과 연동(Mosco, 1996)되기 때문이다(연정모·김영찬, 85쪽, 재인용). 미디어 조직은 외부인력의 유입과 협업의 결과물로 콘텐츠 생산되고, 의사결정권자의 시각이 콘텐츠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제작한 콘텐츠가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게 되면 현장에서의 차별적 문제는 사라지고, 성과중심의 콘텐츠 제작 현장의 관행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디어 제작 현장에 많은 수의 여성이 존재한다고 해도 조직의 문제를 개인의 선택, 개인의 능력으로 치부하

는 것은 경직된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유다. 여성인력이 언론사 뿐 아니라 수많은 미디어 제작 현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콘텐츠에서 재현되는 여성의 이미지나 콘텐츠의 성격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비판이 일었던 이유도 설명해준다. 남성중심적 문화가 강한 조직 내에서 생산되는 콘텐츠가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지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PD저널>의 2017년 3월 3일 기사에서는 방송에서 여성이 얼마나 등장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KBS, MBC, SBS, JTBC, tvN 5개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와 고정 출연자 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조사했는데, 조사결과 전체 출연자 334명 중 여성은 74명으로 22.15%를 차지했다(PD저널, 2017.3.3.).

한국기자협회가 2020년 1월에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신문기자 96% 이상이 대졸자 이상의 학력을 가졌고, 뉴스 정보원의 55%가 50~69세였다. 여성 기자 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2019년 국내 여자 기자 성비는 29.1%로 나타났다(미디어스, 2020.10.29.). 대중적 담론으로는 여성기자의 증가, 여성피디의 증가라는 논의가 떠돌아다니지만, 방송사/언론사의 여성인력의 숫적 증가가 뉴스,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질적 변화를 가져온 것인지, 의사결정권자의 역할과 젠더 정체성 등이 유입되는 여성의 증가와 같은 맥락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에서 KBS가 언론매체 신뢰도 1위를 차지했다. 5년만에 JTBC를 앞선 결과다. KBS는 19.1%, JTBC는 17.5%다. 네이버도 11.1%를 차지했다. 하지만 언론사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20년에는 20%를 넘었지만, 2021년에는 10%대라는 것과 언론매체의 영향력에서 네이버가 37%, KBS는 34.3%를 차지했다는 결과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시사저널, 2021.8.18.).

방송사의 조직문화는 유·무형의 상징체계가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지는 집단적 가치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세월호 보도, 대통령 탄핵, 파업과 미투운동 등의 사회적·정치적 사건을 거치면서 KBS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는 자발적 요소도 작동했지만, 외부적 요인에 기반한 변화도 동시에 이뤄졌다. 여성 비율의 증가와 세대적 특성은 비공식적 네트워크 구축의 변화도 가져왔다는 특성도 알 수 있었다. 남성중심적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요구와 실천도 이뤄지고 있지만, 오랜시간 구축된 조직내의 경직된 문화와의 갈등, 여성의 전문성을 더 증명해야 하는 문화도 여전히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센터의 역할, 성인지감수성에 기반한 프로그램 제작과 여성주의적 시각에 기반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는 제작자의 실천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젊은 세대의 요구는 앞으로의 공영방송사로서의 KBS의 변화를 기대하게 만든다. 동시에 여성임원의 낮은 비율, 남성중심의 취재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조직 내의 젠더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어려움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 백미숙(2012). 1970년대 KBS 텔레비전 교양 피디의 직무와 직업 정체성- 방송 전문성 형성과 신기술, 그리고 제작 정신, 한국언론학보, 2012.11, 125-149.
- 손승혜·김은미(2004). 지상파방송 종사자의 남녀 차이에 관한 연구 전문화와 조직사회화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6), 196-224.
- 임영호(2015). 한국 텔레비전 연구의 실태진단 성과, 한계와 가능성, <언론정보연구>, 52(1), 5-32.
- 강미은·김경희(2005). 미디어산업에서 여성인력의 현황과 지위개선에 관한 연구:신문분야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4권 1호, 268-297.
- 강명현 (2005).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평가: 지역성 지수 개발을 위한 시론적 연구. <방송통신연구>, 통권 61호, 177-202.
- 강주현·최창식(2021). 지역 언론의 구조적 악순환과 전략적 대안, <한국언론학보>, 65(1), 104-147.
- 강형철(2018). 한국사회 공영방송의 존립 의의와 과제: 공영방송 정상화 이후의 정상화, <언론정보연구>, 55(1), 5-55.
- 김균·이은주·장은미(2008). 여기자 직무수행에 따른 경험과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8(3), 75-116.
- 김경희(2017). 『뉴스 안과 밖의 여성』.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경희·강혜란(2016). 여성의 과소재현과 상징적 소멸: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의 젠더 구조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1권 3호, 54-96.
- 김문영·김세은(2018). 변방에서 변방으로, 소외감의 재확인 : 평창동계올림픽과 강원 지역 기자의 역할 인식, 57(1), <사회과학연구>, 27-61.
- 김세은(2017). 디지털시대의 특종의 사회학, <한국방송학보>, 31권 4호, 5-50.
- 김세은·김수아(2007). 저널리즘과 여성의 이중재현, <한국언론학보>, 51권 2호, 226-255.
- 김세은·홍남희(2019). 미투 운동(#Metoo) 보도를 통해 본 한국 저널리즘 관행과 언론사 조직 문화 여성 기자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4(1), 39-88.
- 박인규(2004). 공영방송 KBS의 조직문화와 가치지향성, <한국언론학보>, 2004.2, 93-117.
- 문선아·김봉근·강진숙(2015). 성폭력 범죄 보도 태도에 대한 근거 이론적 연구: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과의 질적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9권 6호, 37-66.
- 민현주(2010). 기업특성과 가족친화제도 활용 용이성: 여성관리자의 육아휴직 및 본인 병가제도 활용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0(3), 119-145.
- 양종해(2004). 『현대조직관리』. 박영사.
- 연정모·김영찬(2008). 텔레비전 연예정보 프로그램의 생산자 문화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KBS 2TV <연

- 예가 중계)의 생산 현장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2(2), 82-122.
- 유선영 (2003). 『미디어 조직과 성차별: 여성언론인 주류화 방안』, 한국언론재단.
- 윤석민·이철주(2003).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 조직에 있어서 여성인력의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22호, 167-282.
- 이석호·이오현(2019). 취재현장을 떠난 젊은 신문기자들의 직업적 삶에 대한 질적 연구:중앙일간지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52-214.
- 이영자(2006, 11월). 언론은 여성을 위한 오피니언 리더인가. 한국여성학회 '성인지적 시각과 언론보도' 세미나. 서울: 관훈클럽.
- 이종구(2009). 방송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관행,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제15호, 273-312
- 이종임(2019). 방송사의 조직문화, 노동 그리고 젠더, 김명혜 외 지음(2019). <핵심이슈로 보는 미디어와 젠더>, 서울:이화출판.
- 이종임·홍주현·설진아(2019). 트위터에 나타난 미투(#Me Too)운동과 젠더 갈등이슈 분석: 네트워크 분석과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4권 2호, 99-146.
- 이현재 (2007). <여성의 정체성- 어떤 여성이 될 것인가>, 서울:책세상.
- 이희은(2018). 페미니즘 운동과 미디어윤리, <언론정보연구>, 55권 3호, 120-157.
- 장희은·노성철(2019). 불안정 창의노동자들의 정체성과 고용형태의 변화: A사 프리랜서 구성작가의 정규직화 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25권 1호, 253-298.
- 정재민·김영주(2011). 미디어 기업 종사자들의 윤리경영 인식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8(4), 299-335.
- 조성호·안대영(2015). 조직문화와 리더십의 상호적합성 분석-지역지상파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5(2), 2015.06, 107-140.
- 조수선·정선호 (2017). 언론인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성별과 직위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권 1호, 215~234.
- 조혜원·함인희(2016). 기업관리직의 젠더 격차와 유리천장 분석, <한국사회정책>, 23(2), 2016.6, 49-81.
- 최이숙(2018). 백일 넘긴 미투운동 보도...우리는 성장했나?, <관훈저널>, 60(2), 51-59.
- 최이숙·김은진(2019). 누구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하였는가?:인터뷰 기사를 통해 본 미투운동 초기 TV 보도의 양상, <미디어, 젠더&문화>, 34(2), 147-189.
- 최이숙·장은미·김세은(2020). 미투운동(#MeToo)이후 젠더 이슈 보도의 성과와 한계, <한국언론정보학보>, 104, 122-163.
- 주재원(2014). 다문화 뉴스 제작 관행과 게이트키퍼의 문화정치학.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권 10

- 호, 481~484.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 <양성평등미디어문화확산 토론회 자료집>.
- 한국언론진흥재단(2019). 『2019 한국의 언론인』.
-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한국언론연감』.
- 한국콘텐츠진흥원(2021). 『2020 방송영상산업백서』.
- 한선·이오현(2010). 지역신문 기자의 작업문화와 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언론과 사회*, 18(4), 2-36.
- 허명숙·나미수(2008). 지역언론과 성차별 전북지역 언론인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9), 87-131.
- 홍지아(2016). 여기자들이 경험하는 직업과 성/젠더의 관계와 양성평등적 뉴스생산에 대한 인식, <한국여성학>, 32(3), 27-59.
- Dimmic, J & Coit, P(1982). Levels of analysis in mass media decision making“, *Communication Research*, 9(1), 3032.
- Dr. Jatinder Kumar Sharma.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Sensitisation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 Exploration in Philosophy of Mind".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Research*. 24 (90): 2016, 380-400.
- Kilborn, R.(1992). How Are Television Soaps Produced?, *Television Soap*, London:Batsford.
- Lorber, J. (2001). *Gender inequality: feminist theories and politics*. 최은정, 임소희, 임혜련, 정광숙 옮김(2005). 『젠더 불평등: 페미니즘 이론과 정책』, 서울:일신사.
- Hardin, M. and E. Whiteside(2009), “Token Responses to Gendered Newsrooms: Factors in the Career-related Decisions of Female Newspaper Sports Journalists”, *Journalism*, 10(5), pp.627-646.
- Meyers, Marian(1997), *News Coverage of Violence Against Women: Engendering Blame*, Thousand Oaks, CA: Sage.
- Mies, M.(1998). *Patriarchy and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 Women i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London:Zed Books. 최재인 옮김(2014).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여성, 자연, 식민지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 서울:갈무리.
- Mulvey, V.(2009/1996).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cation*(2nd ed.). London:Sage.
- North, L. (2016). Damaging and daunting: female journalists’ experience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newsroom. *Feminist Media Studies*, 16(3), 495~510.

구보라(2017.3.3.). “여성은 방송에서 얼마나 등장하고 있을까”, PD저널.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24>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1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ROOM A (유튜브 생중계)

KBS 후원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공영방송, 공영방송의 미래

공영방송, 스포츠, 젠더
: 20·30대 여성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정사강(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공영방송, 스포츠, 젠더 : 20·30대 여성 시청자들을 중심으로¹⁾

정사강(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2020년 도쿄 올림픽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KBS의 다큐 인사이트에서는 ‘국가대표’라는 제하에 여성 스포츠인 여섯 명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듣는 기획을 방영했다. ‘Documentary 국가대표 sports woman’라는 타이틀 하에 배구 김연경, 축구 지소연, 골프 박세리, 핸드볼 김은아, 펜싱 남현희, 수영 정유인이 등장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해당 다큐멘터리는 당일 동시간대 지상파 시청률 1위를 기록하였으며²⁾ 시청자 게시판에 무려 70여페이지의 관련 소감이 올라오는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해당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과 성원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다수의 의견들인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했다’, ‘용기를 가져다 준 프로그램이다’ 등의 칭찬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해당 기획은 여성 개그우먼, 배우 윤여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이어 아카이브 형식으로 여성 스포츠 선수들을 조망한 것으로 여성 선수들이 등장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 스포츠와 관련한 여러 차별적 이슈들을 드러낸다.

스포츠는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이면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끼리 속력, 지구력, 기능 따위를 겨루는 일’의 뜻을 가지고 있다(국어사전). 그리고 좀 더 확대하여 스포츠(Sports)의 어원으로부터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자기의 본래의 일에서 마음을 다른 곳으로 나르는 것’, ‘일에 지쳤을 때 기분을 전환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 ‘생활의 성실한, 또는 슬픈 장면을 떠나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라는(체육학사전, 2000) 뜻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흔히 한국어로는 운동 또는 운동경기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국어사전). 기분 전환에서부터 몸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행위, 경기 등까지를 포괄하는 스포츠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간에게 필수적인 활동이면서 그 관계 맺음과 사회적 의미는 매우 복잡하며 자본,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를 비롯

1) 본 원고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일부입니다. 인용과 배포를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미남군단은 없잖아요” 편견과 차별에 맞서온 국가대표들의 투쟁기. (PD JOURNAL. 2021.08.13.)

한 다양한 요인들 및 권력관계들과 얽혀 있다.

최근 전지구적으로 도래한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은 인간의 삶에 무수히 많은 제약을 가져오고 기존에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질문들과 마땅히 물었어야 했으나 일상적으로 간과되거나 너무나 당연시 되어 있고 있었던 여러 질문들을 던져주었다. 스포츠와 관련된 부분도 그 중 하나였다. 집단 감염 위험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이동이 금지되고 집합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야외 활동을 제외하고는 실내 스포츠 센터, 수영장, 헬스장 등을 비롯한 운동 공간의 운영 범위는 축소되었으며 거의 모든 경기장에서의 관람은 제한되었다. 이 상황은 스포츠 영역에서의 잠시 잊고 있었던 여러 질문들과 스포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관중이 없는 경기가 초래하게 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람들의 일상에서 여가 또는 기분전환을 위한 행위로서 즐거움의 상실, 스포츠가 사람들의 삶에 가지는 의미들 또는 의미들의 차이점, 그리고 불평등을 가시화시키고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누가 어떤 영역에서 주된 관중이고 누가 주된 플레이어들인가 등이 이러한 질문들일 수 있을 것이며 이 문제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영역이다.

관련하여 전지구적 산업으로서의 스포츠의 면면과 예외적 상황이 상기시킬 수 있는 질문들이 이야기되고 큰 관심을 받았던 장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이었다. 올림픽 역사에서 최초로 감염병으로 인해 1년 연기되어 개최된 도쿄 올림픽은 원래는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전세계적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일 년여 뒤인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무관중으로 개최되었다. 도쿄 올림픽은 그 개최 직전까지도 개최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가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었으나 이미 올림픽 개최를 위해 긴 준비기간 동안 소요된 천문학적 비용, 올림픽을 위해 훈련해왔던 선수들과 관련자들, 그리고 여러 제반 상황들을 고려하여 개최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 도쿄 올림픽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 IOC는 '어젠다 2020'에 따라 도쿄 올림픽까지 여성 선수의 비율을 5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혼성 부문이 다수 신설되었으며 도쿄 올림픽은 역대 가장 많은 여성 선수들이 참여한 올림픽이 되었다.

스포츠는 인간의 신체활동이면서 막대한 이윤이 걸려 있는 산업이고 때로는 정치적이며 사회문화적 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록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더라도) 올림픽은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 경기를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을 그 이상으로 두고 있으며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다"라는 쿠베르탱의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닌 '인간'의 성숙을 위한 스포츠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올림픽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평등, 여성 선수의 참여율을 남성 선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시사점을 지니는가?

본 연구는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50%에 도달하도록 하는 목표가 2020년의 올림픽에서 실현되어야 할 어젠다로 제시된 바에 대한 질문, 올림픽 정신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완성과 관련하여

지칭해왔던, 지칭하는 ‘인간’은 누구인가의 문제를 생각하고자 한다, 이에 스포츠와 젠더를 가로지르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여 스포츠와 스포츠를 재현하는 미디어가 추구해야 할 관련 가치들까지를 스포츠를 하고 미디어를 시청하는 여성 주체들, 그중에서도 20,30대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스포츠는 성별화되어 왔으며 운동과 여성의 관계 또한 차별/편향적으로 구성되어왔다. 주로 남성의 영역으로 구성된 스포츠 분야는 그 기원에서부터 성별화되어 있었다. 고대 올림픽과 관련해 여성의 스포츠 참여 또는 관람은 허용되지 않았고 근대 올림픽에서도 1896년 초대 올림픽인 아테네 올림픽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금지로 여성 선수는 단 한명도 출전할 수 없었다. 그 창시자인 쿠베르탱은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기고 여성은 스포츠에 참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성을 위해 환호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했으며(송형석, 2006) 영국의 경우 신사와 스포츠 ‘맨’을 같은 의미로 생각할 정도였다(체육학사전, 2000). 스포츠에 내재한 성차별적 요소들은 다수의 스포츠 종목에서 남성성이 강조되어 왔던 맥락에서 보여지듯 특정 성별을 중심으로 하며 불평등을 야기해왔고 여성은 오랜 기간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경험해왔다(홍지은·임용석, 2018). 이러한 양상은 자연스럽게 대다수의 스포츠 분야를 기본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두고 일부 영역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전개되어왔고 뿌리깊게 자리잡은 스포츠 내의 성차별은 선수의 참가 수, 참가 분야, 지원되는 자원 및 상금, 스포츠 지도자들의 구성,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모습(태도), 중계나 보도에서의 미디어의 재현에 이르기까지 스포츠와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서 나타난다.

스포츠의 성차별적 요인들은 과거에 빈번했던 (가부장적) 권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여성에 대한 직접적 금지의 방향에서부터 구조적으로 형성되고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오면서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한다. 이는 자라나면서 경험하는 성차별적인 관념들이 개개인들에게 하나의 규범 또는 규율처럼 내재화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즉, 과거에는 여성의 참여를 직접적으로 금지했으나 오늘날에는 (겉으로, 직접적으로는)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차별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누적되어 온 차별은 일부 비가시적이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더 교묘하고 더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이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가족 및 또래집단, 학교를 비롯한 교육, 미디어의 영향 등이 지적되어 왔다(홍지은·김매이·임용석, 2016). 스포츠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는 체육과 성별과 관련하여 성장기간 동안 체육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운동장에서의 젠더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는데(Evans, 2006; Hill, 2015)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에 따르면 운동장이라는 공간에서 중학

생들에게 이미 운동장의 주인은 남성이라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운동을 하는 장소로서 운동장은 남성들이 운동에 더 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남성들이 주인인 공간이며 남학생들의 관점에서 여학생들에게 사용을 '허용'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 자연화되어 있는 곳이었다(남상우, 2016). 이러한 일련의 실천과 관점들은 여학생들의 '합의'와 체육교사들의 공모로 강화되고 유지되는데(남상우, 2016) 여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은 기존의 구조화되어 있는 이러한 질서 하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배제하는 현상들이다(Cockburn & Clark, 2002). 이는 역시 과거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요구받고 이어져 내려온 가치관과 사회적 관계들 안에서 '여성다움'이라는 성역할에 충실해야만 했으며 성차에서 비롯된 다름의 차이를 강요받아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초기 근대스포츠에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탁월함을 겨루는 스포츠가 여성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관점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배제되었던 것(서경화·김석기, 2012)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라는 개념, 젠더인식이 스포츠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인 대학생들은 '남성적 종목'의 경우 '활동성', '경쟁성', '팀 기반' 등의 요소를 지닌 것으로, '여성적 종목'의 경우에는 '비활동성', '비경쟁성', '개인기반' 등을 특징으로 여기고 있었다. 운동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야외활동이면서 힘이 요구되고 위험하고 격렬한 신체접촉들이 동반되는 경우는 남성의 스포츠로, 실내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름답고 우아함을 강조하며 여성의 몸매와 몸을 나타내는 경우는 여성의 스포츠로 여기는 양상들이 나타났다(홍지은·김매이·임용석, 2016). 연구 참여자들의 이러한 인식형성의 기저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이 자리 잡고 있다.

남녀공학 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에도 명목상으로는 통합적 체육수업을 받았으나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경험한 수업 내용과 평가는 통합적이지 않았으며 남학생 중심의 체육수업이 전개되고 여학생들은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여성들을 스포츠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며 가령 '남자=축구', '여자=피구'라는 공식을 성립하게 된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홍지은·김매이·임용석, 2016). 즉, 해당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은 성별에 따라 정해져 있는 체육수업이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별화된 스포츠 구분을 내재하게 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스스로를 배제하는 것 또는 소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으로도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스포츠에 대한 성별화된 인식이 자리잡게 되는 또 다른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는 미디어가 지적된다. 미디어는 여러 측면에서 스포츠에 대한 성별화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크게는 미디어를 통해 누구의 경기를 주로 보게 되고 어떤 스포츠를 어떤 성별의 스포츠로 접하게 되는지의 문제 그리고 미디어가 여성을 어떻게 재현하는지의 문제와 연관된다.

스포츠에서 여성의 몸이 가지는 위치는 사회적 젠더와 규범적 섹슈얼리티를 유지했을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즉, 생물학적 이성애로 대표되는 틀 안에서 해당 성(sex)을 유지할 때에만 여자로서의 여성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나 스포츠에서 성 정체성은 운동수행에 앞서 중요한 전제조

건으로 작용하는데 성별 이분화는 종목 간의 차이를 변별해주고 스포츠에서 남성성에 특권을 부여해주는 상징적 위계질서로 작동한다. 대체로 여성선수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경기력 그 자체보다 전시 관점에서의 이성애적 측면이 크게 작용하게 되며 이는 쿠베르탱의 “여성이 격렬하거나 폭력적인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발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김정은·신현균, 2016).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남성 혹은 여성 선수들의 경기를 접하게 하며 특정 종목에서 특정 성별을 연상시키게 한다. 방송은 남자 축구를 많이 방영하지만 여자 축구는 방영하지 않으며 남자들은 격투기를 하지만 여성들이 격투기를 하는 모습은 방영되지 않는다(홍지은·김매이·임용석, 2016). 보도 분량에 있어서도 성별 간에는 절대적인 격차가 나타나며 여성 스포츠 선수에 대해서는 왜곡된 형태의 보도가 이루어지거나 성적으로 고정된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현주·고은하, 2004).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관련된 일간지 기사 및 사진 보도량을 분석한 연구에서 고은하(2008)는 올림픽 기간을 포함한 27일간의 일간지 보도에서 올림픽 기간을 전후하여 올림픽 기간이 아니었던 시기보다는 많은 양의 여성 및 혼성스포츠 기사나 사진이 게재되었으며 여성스포츠의 사진이 평소보다 더 큰 면적으로 게재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보도량은 여성이 남성의 절반 수준이었음을 지적한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경우 한국은 여성이 8개 종목, 남성이 10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등 경기력 자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보도량에는 차이가 현저했으며 성별 이데올로기 또한 강하게 나타났다(고은하, 2008).

여성 스포츠 선수 보도에 대한 외국의 연구 사례도 한국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미디어의 여성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보도 프레임은 크게 ‘외모’, ‘매력’, ‘감정’ 등으로 나타나며 외모 프레임은 선수의 기량보다는 경기 외적인 부분에 집중해 보도하는 것으로 이는 스포츠 저널리즘에 있어서 매우 뿌리 깊은 역사를 지닌다(Eastman & Billings, 1999). 여성 스포츠나 여성 운동선수의 운동행위보다는 특정 신체부위나 복장 등을 강조하거나 미모 등 스포츠와 무관한 특성에 기사의 초점을 맞추고 여성 운동선수의 신체를 성상품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민병현·우동우, 2012). 일부 미디어의 보도 태도들에서 변화가 감지되는 경우들에도 단순한 성적 대상에서 ‘누구의 어머니 부인, 여자친구’로 바뀌는 정도(Cooky, Messener, & Musto, 2015)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스포츠 관련 보도의 경우 여성 스포츠 보도 사진들에 있어서 시기별, 종목별 사진 보도 경향에서 일부 차이가 나타나는데 한국 여성 스포츠가 강세를 보였던 1970년대 농구, 배구, 1980년대 양궁, 1990년대 이후 골프 등의 종목 사진에서 한국 선수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딸’로 그려졌던 반면, 전통적으로 여성스포츠로 분류되었던 리듬체조나 여성에게 적합한 종목으로 인정되어온 종목들서는 여성다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요정’이나 성적 매력을 보여주는 스타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남성적 종목으로 분류되어온 육상, 축구 등에 참가한 여성들은 ‘남자들 처럼 되고 싶은’ 그러나 ‘남자가 될 수 없는’ 주변인으로 묘사되기도 한다(고은하·김현주, 2004). 이는 오늘날까지도 한국에서 여성 스포츠 선수들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들로 한편으로는 민

족주의적 이데올로기와 다른 한편으로는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스포츠의 성별화되어 있는 구조, 미디어의 재현 양상과 문제점 등을 현재 20,30대 여성들의 경험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대로 명확하게 경험들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나 페미니즘 리부트의 영향을 경험하고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30대 여성들이 어떻게 현재의 상황을 읽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은 오늘날 비가시화되어 있는 또는 자연화되어 있는 문제들까지도 짚어줄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일차적으로 20,30대 여성 세 명에 대한 인터뷰가 수행되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분야는 다를 수 있으나) 스포츠를 하는 것 또는 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었다.

1) 스포츠 경험과 스포츠에 대한 인식

스포츠에 대한 관심 종목이나 경험해 본 바가 동일하지는 않았으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스포츠’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흥미로운 지점은 흔히들 ‘여성적인 종목’으로 생각하는 정적인 운동들 뿐만 아니라 ‘남성적인 종목’이라고 여겨지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참여하고 스스로 만들어가기도 했다는 점이며 ‘몸을 움직인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었다.

어렸을 때는 직접 한다기 보다는 보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랑 되게 친했어요(웃음) 그래서 친구들이랑 맨날 체육시간에 되게 열심히 하고 주로 운동장에 남자애들이 축구, 공 차고 그랬는데 저희도 막 꺼달라고 해서 같이 하고 그렇게 활발하게 같이 놀려고 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도 제가 담임선생님이 체육선생님이셨고 그 종목, 게이트볼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정적인 운동이긴 한데 그거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경기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하면서 좀 더 스포츠에 능동적으로 관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A).

5학년때부터 구기종목에 처음 눈을 뜨게 됐고 그리고 농구가 저는 혼자서 하는 태권도나 검도보다 훨씬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팀원들이랑 같이 뛰고 한다는게 되게 재미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하다가 중학교 가서도 농구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동아리를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여자농구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찌다보니까 주장이 된거죠. 그때는 여자 선수들 자체도 많이 없어가지고 약간 남녀혼합처럼 동아리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것에 관심이 많으신 중학

교 체육선생님이 또 계셔가지고 저도 체육선생님들이랑 되게 친했기 때문에 (웃음) 제가 주장을 말아서 이것저것 대회에 나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유니폼도 만들고 연습 커리큘럼 이런 것도 짰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운동하는 것을 부모님이 되게 좋아해주셨고 저도 하면서 좀 재능이 없다는 걸 느끼진 않아서 오히려 보는 것보다는 하는 걸 많이 했던 시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였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운동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니까 거기서도 자연스럽게 운동하는 동아리에 참여를 하게 된거죠(B).

제가 대학교 와서 검도부에 들어갔었거든요. 한 반년 정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사실 검도랑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 거 같았어요. 몸을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어서. 코로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하게 되어서 다행인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웃음). 그리고 태권도를 오래 했어요. 초등학교 내내 했어요. 한 5년 정도? 그리고 지금은 본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체육 도장을 수요일, 금요일에 가거든요. 안가는 날에는 등산을 항상 가요. 집 뒤에 산이 있어서 갔다오면 한시간 반 두시간 걸리는데 오늘도 갔다오고 매일매일 갔다오고 있습니다. 안하면 몸이 제 몸 같지가 않아요(C).

이들은 운동의 경험 시기나 정도는 달랐지만 공통적으로는 성장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서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특히 부모님 등 가족뿐 아니라 학창 시절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체육선생님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저는 주변에 저보다 운동에 진심인 사람들이 꽤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되게 평범하게 느껴지는 환경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 운동을 하다하다 다시 축구로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원래는 제 주변에서 알고 지내는 (또래) 지인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인맥이 계속 약간 넓어지더라고요. 어디 대회 때 나가거나 경기 한 번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친해지니까 막 학교 선배님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학교 졸업을 하셨는데 사회인이셨다가 운동을 되게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좀 알게 되가지고 그런 풀에 둘러싸여 있다보니까 오히려 저는 다들 이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다가 이제 미디어를 보면 그게 확 깨지는 거죠. 생각보다 주변에 여자들은 운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B).

저는 학생 때는 반에서 그래도 너댓명 그정도는 여자친구들이 운동을 좋아하고 저처럼 같이 밀하려고 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의 대부분은 체육시간에도 앉아있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대학에 와서는 조금 더 학생때보다는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기는 쉬운 환경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냥 얼마나 스포츠를 소비하느냐를 생각하면 최소한의 몸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해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있지만 취미생활로 저변을 넓혀가는 친

구들은 더 없는 것 같고..(A)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특성들로 주변에도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도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미디어 또는 다른 환경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경우가 '보편'이라는 인식은 가지지 않거나 또는 주변에서는 스포츠를 하고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는 괴리를 느끼는 경우들도 존재했다.

2) 미디어에서의 스포츠 재현의 문제점

이들은 미디어에서 재현하는 스포츠의 문제점들과 관련해서는 여성 경기의 부재, 여성 선수들을 보여주는 경우 경기력이 아닌 다른 외적인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 여자 선수를 프로로서 대하지 않고 일반 여성들이 운동을 하는 것도 다루지 않는 부분 등을 지적했다.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주말에 동물농장을 보고 나면 꼭 슈퍼액션 채널에서 UFC 가족들이랑 봤는데 그런거 보면 한번도 여자는 안나왔거든요. 그리고 항상 축구경기도 지상파 채널에서 어 다음주 화요일에 축구 경기 있다 보면은 당연히 남자 경기고, 그러니까 여자 경기를 본다는 옵션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미디어 채널에서 그런데,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나마 여자 선수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건 그런 올림픽 경기에서 남자 경기 있고 여자 경기 있을 때 그렇게 보여주는 정도 그런 때인 것 같고 여자 선수로서 되게 두각을, 조명을 받고 그랬던 거는 저 어렸을 때 박세리 선수가 있었고 그 뒤로 약간 좀 뭔가 유명한 선수들이 없다가 김연아 선수가 되게 여성스포츠 선수라는 직업이 두각을 보인 게 그때였던 것 같고 그 뒤로도 그냥 몇몇 스타선수들이 나왔을 뿐 뭔가 여자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 특히나 예능이나 그런 방송 프로그램들에 여자 선수들이 나올때는 그런 뭔가 피겨 선수나 아니면 리듬체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외모나 이런 것들로 조명을 받아서 얼짱선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뭔가 스포츠 전문인으로서 접했던 기억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정말 최근에서야 노는언니나 이런 좀 여자 스포츠 예능들이 많이 나와서 그때 좀 본 것 같고 그리고 꼭 전문 선수들이 아니더라도 여자 방송인들이 티비에서 운동을 하는 장면도 정말 최근에서야 나오는 것 같고요.(A)

이러한 지적은 현재 방송에서 스포츠가 다루어지는 방식을 여실히 드러낸다. 남성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들은 더 많이 노출되고 여성 선수들은 보편이 아닌 특수한 케이스들이 되며 스포츠 중계가 아닌 예능 프로그램들에서도 여성 선수들은 외적인 것에 치중해 소모적으로 다뤄지는 경우들이 빈번하다. 또한 남성 방송인들이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 또는 장면 등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뤄지지만 여성들이 운동을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각종 프로그램들에서 여성들이 재현되는 방식과도 유사한 맥락을 지니는데 특히 보조자로서 여성을 재현하는 부분도 함께 지적되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여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시청자들이 스토리를 뽑아낼 수 있는 것도 훨씬 다양해진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스포츠는 사실 여자들만 나오기 시작한 게 얼마 안된 것 같아서 예시를 꼽기가 쉽지 않은데 예능만 봐도 뭔가 남자라는 출연진이 옆에 있을 때 아직까지는 미디어에서 그걸 동등하게 다뤄주는 게 아니라 좀 남자 출연진의 서브로 여자 출연진을 다루는 방식에 되게 익숙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B).

방송에서 여성을 보여주는 방식은 매우 관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관습은 기존의 성차별적인 연출 및 촬영 방식이 상당 부분 고착화되어 있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여성을 잘 보여주지 않거나 보조자로서 재현하는 양상은 실제 여성상에 대한 왜곡과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적인데 하나의 주체로서가 아닌 보조자로서 여성을 머물게 하고 배제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 실제 여성의 재현과 관련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지적되는데 이는 미디어에서의 여성과 실제 현실의 20,30대 여성 사이의 거리를 드러낸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찾아 나서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잘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거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팀 스포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게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게 뭔가 공영방송이나 미디어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을만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도 되게 오랫동안 아마추어판은 무시가 되었던 것 같은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능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전에는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전문성 있는 여성 선수들만 등장을 했는데 또 그 선수들의 어떤 운동적인 기량이라던가 이런 것에 주목을 하기 보다는 외적인 이미지나 아니면 약간 입담같은 걸로 유명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 최근에 미디어가 뭔가 트렌드라서 여성 스포츠를 찍어 주는 것 같긴 하지만 진짜로 여성들이 스포츠를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하고 잘하고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B)

미디어는 실제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들, 스포츠에 관심이 있고 척박한 상황하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능동적으로 스포츠를 하는 여성들을 재현하지 못하고 이들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다. 실제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 여성들은 미디어 내에서는 부재한 것이다. 그러나 미약하나마 이번 올림픽에서 일부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기존에 방송사,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에서는 인기 종목, 그 중에서도 국민의 관심이 많은 축구, 야구 등 남성들이 출전하는 경기들을 주로 중계를 해줬다면 이번에는 뒤늦게나마 지상파 중에서는 두 채널을 가지고 있는 KBS, 또는 일부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시청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도 언급되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여자 선수들이 두각을 보였기 때문에 중계를 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보

여주지는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기도 하였다.

농구 경기도 케이비에스 원에서 유일하게 중계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비교 대상이 이번 올림픽 안에서 여성 경기들이 덜 나왔나 제 생각에서 그렇게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야구나 축구 경기 할 때 배구가 소외되고 이런 것들은 여자 경기이기도 하고 축구나 야구 팬덤이 한국에서 강하기 때문에 주목을 덜 받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더 심했던 것 같은데 이번 올림픽이 그나마 여자 선수들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하계 올림픽에서 주목받았던 양궁이나 배구나 이런 종목들은 여자 선수들이 두각을 많이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수신료가 안아깝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A)

3) 여성 스포츠에 대한 미디어 재현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인터뷰이들은 공통적으로 최근 올림픽 이후에 방영되었던 다큐 인사이트 ‘국가대표’ 편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가 된 부분은 ‘발화 가능성’에 대한 것이며 이는 방송, 특히 신생 플랫폼들에서 개인 방송 등이 가지는 발화 가능성과 다른 맥락에서 기존의 방송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지향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게 사실 전에 그때 개그우먼들이 나와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런 여성 코미디언으로서 겪었던 차별이라 방송계에서 느꼈던 그런 부정적인 대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는 되게 겹쳐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건 여성들이 겪는 차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걸 발화할 기회가 사실 없기도 하고 어쨌든 미디어에 여자들이 등장할 기회도 없고 나와도 결혼은 했네 어쨌네 외모가 어떻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스포츠계에서 자신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특이나 지금 시기에 유효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셸러리캡³⁾ 이야기도 김연경 선수가 계속 리더로서 자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로서 항상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아마 제작진한테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그런 이야기를 누가 본인이 여성 스포츠 선수로서 겪은 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더더욱 이런 차별에 대해 누가 분석하고 이야기하고 해도 더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실제로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고 그러면 훨씬 더 그런 여성 문제라던가 그런 걸 이야기했을 때 조금이라도 뭔가 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다큐멘터리라서 일회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국사회에서 그

3) 셸러리캡 : 한 팀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 선수들의 몸값이 지나치게 상승하고 구단들이 적자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며 돈 많은 구단이 돈을 앞세워 최고수준의 선수를 독점함으로써 팀간 실력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프로농구(NBA)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두산백과사전).

런 프로그램이 계속 나올 수 있나 싶기도 해요.(A)

저는 그때 그 다큐멘터리 나올 때 제 주변에 운동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큰 이슈였어요. KBS가 이제 제대로 뭔가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저런 다큐멘터리를 꼭 만들어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운동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운동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다큐멘터리 봤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가지고 되게 그 스포츠계에서 여자들의 자리가 좁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당사자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만큼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다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구체적인 메시지를 미디어를 통해서 내보낸다는 게 되게 용기있는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일인 방송 중에 여자 스포츠 관련해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영상들 보면 사실 메시지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거기도. 아마추어 여자 선수들이 될 공간이 없고 특히 남자들에 비해서는 네트워킹 풀이나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여자 선수로서는 좀 힘들다 이런 메시지들인데 그 다큐랑 되게 달랐던 점은 (개인 방송에서는) 그걸 엄청나게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였어요.(B)

여성 스포츠 선수, 여성 스포츠에 있어서의 차별과 관련된 이야기를 실제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의 발화를 통해서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차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현실을 미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외면하려고 하는 청자들에게도 전달이 가능하다는, 실제 여성 선수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이러한 (용기있는?) 기획이 지상파 방송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는 인식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이 지점은 온라인 공간 또는 일인 미디어가 마치 개인의 자유로운 발화가 가능한 새로운 매체인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사회에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차별과 관련된 지점, 소수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지지받을 수 있는 공간을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가 제공할 수도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탐색하게 한다.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 지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누구의 목소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화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경유해 전달되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저는 일단 성비요. 다른 걸 고려하기 전에 일단 여자가 나오는, 여자가 나와서 운동을 하는 그런 게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노는언니 하나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일단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그 안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C)

저도 드는 생각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나 이런 건 어느 콘텐츠에서나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만 전체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같거든요. 많아져서 다양하게 나온다면 그 중에 하나가 여자를 그렇게 소비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텐데 지금 몇몇 없는 것들이 다 비슷한 양상으로 그렇게 적은 수의 스포츠 선수들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많이라는건 남자 선수들 등장하듯이 그 남자 예능인들이 스포츠하는 거 나오듯이 정말 그 정도로 여자들도 그 정도로 나오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중계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에 리우 올림픽이었을 것 같은데 그 태극낭자 이런건 애교수준이고 진짜 무슨 엄마의 힘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슨 여자 선수가 집에서 살림을 잘한다 이런 이야기도 진짜 많이 나오고 정말 이게 중계가 맞나 싶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제, 뭐 여 붙이는 건 기본이고...그런거 생각하면 이번엔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중계진도 제발 여자들을 많이 기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중계를 여자 경기를 남자가 중계하는 건 봤어도 남자 경기를 여자가 중계하는 건 못 본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자 중계진, 캐스터가 훨씬 많아졌으면 좋겠어요.(A)

가장 문제적이고 변화해야 할 지점으로는 여성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여전히 미디어에서 여성 스포츠 선수, 여성 스포츠를 재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재현의 문제는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지점들을 포괄적으로 보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을 어떻게 평등하게 재현할지를 고민하기 이전에 여성들의 재현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전히 여성을 사적 영역에 묶어두는 발언들, 한 명의 선수이기 이전에 ‘여성’으로 고정하는 언술들의 사용도 가장 우선적으로 변화해야 할 요인으로 이야기되었다. 일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성차별적 언어 사용은 관습적으로 매우 쉽게 이뤄지고 있고 2020년 도쿄 올림픽 중계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영역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은 궁극적으로는 방송에서 여성 스포츠 선수들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 방송사 조직 차원, 누구를 어디에 기용하느냐의 문제제까지 성차별적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진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여성 선수의 참여가 50%에 도달하도록 하는 어젠다였다는 것은 ‘불평등’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는 시기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수치상으로 이번 올림픽은 역대 최대의 여성 선수들이 참여한 올림픽이었으며 목표치에도 거의 도달하였다. 그러면 평등은 성취된 것일까.

스포츠의 역사, 학교에서의 교육, 미디어의 재현 그리고 현실이 보여주듯 성차별과 불평등은 구조적으로 전방위에 걸쳐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의 틀을 구성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로서 미디어는 불평등이 구성되고 작동하는 핵심적인 장으로 기능한다. 미디어에서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성취는 때로는 폄하되고 때로는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조망되어 왔으며 여성 선수들의 위치는 선수 이전에 여성으로 머물기를 요구받는다.

이 연구를 통해 듣고자 했던 20,30대 여성들의 목소리는 그들에게 스포츠가 현재 사회와 미디어에서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성별화되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포츠를 하고,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그들은 ‘여성적 종목’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여성(아마추어) 스포츠가 맞닥뜨리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고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그들이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된 데에는 성장과정에서 주변의 영향이 아마도 일정 부분 이상 작용했을 것이다. 편견이 없는 일부 공동체 또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존재는 어떤 부분에서는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도 한다. 그러나 앞서 인터뷰이들의 미디어에 대한 바람, 여성 선수들이 또는 운동하는 여성들이 성비가 맞는 정도로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바람이 시사하듯 미디어는 이러한 여성들을 재현하기는커녕 여전히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사회 전반의 인식 또한 유사하다. 다수의 경험은 남학생의 운동장과 주변화되어 있는 여학생들, 여성 지도자들의 부재와 성별화되어 있는 인기 종목들, 지원 및 상금의 차이와 성차별적인 언론 보도와 증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한 가운데 흥미로운 반동의 가능성은 인터뷰 도중에 잠시 언급되었던 지상파 미디어, 그 중에서도 KBS에서의 증계 또는 프로그램에서 일부 발견되었다. 비록 뒤늦게나마 다른 채널들에서 여성 경기를 증계하지 않을 때에 증계가 이루어졌던 것, 올림픽 직후 여성 국가대표들의 발화를 통해 스포츠계의 성차별을 다룬 기획을 방송한 점과 그에 대한 반응들은 성별화되어 있는/성차별적인 현재의 상황에 미디어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KBS가 ‘공영방송’이었음을 상기한다. 공익과 관련된 개념은 정의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나 소수계층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 다양성 등은 지속적으로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가치 중의 하나로 논의되어왔으며 ‘한 사회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을 사회를 구성하는 전 계층,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연관” 시킴으로써 사회구성체의 선순환적 발전 및 통합을 추구하는 것’(우형진, 2016)이라 본다면 현재 이러한 가치-성평등-를 이야기하고 추구할 수 있는 주체로 기성 미디어,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은 큰 영향력과 가능성을 지닌다. 물론 증계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과 여성 개개인들의 노력에 초점이 맞춰지는 재현 방식은 이러한 반동의 가능성이 KBS라는 조직이 아니라 이번에 우연히 몇 개인들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씻을 수 없게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20,30대 여성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작은 계기를 열 수 있다면 미디어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고은하·김한주(2004). 한국 신문에 나타난 여성스포츠 사진 보도의 이데올로기. *체육과학연구*, 15(4), 172-183
- 고은하(2008). 아테네올림픽 신문 보도의 내용분석 - 성별 보도량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1), 205-227
- 김정은·신현균(2016). 여성 운동선수의 섹스화된 몸과 젠더화된 몸.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0(4), 1-17
- 김정은·신현균(2017). Butler의 '수행성' 개념을 통해 바라본 스포츠에서의 탈구성적 주체되기. *한국체육학회지*, 56(1), 43-51
- 남상우(2016). 운동장에서의 젠더 중심화와 주변화: 중학생들의 체화된 젠더 질서 사고방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9(3), 133-151
- 민병현·우동우(2012). 스포츠사진에 나타난 여성이미지의 젠더적 맥락성 연구 : 2012년 런던올림픽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7(3), 124-159
- 서경화·김석기(2012). 젠더론과 여성스포츠 : 올림픽 경기를 중심으로. *움직임의 철학:한국체육철학회지*, 20(3), 129-144
- 우형진(2016). 공영방송 KBS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청자 평가가 KBS 선호도 및 적정 수신료 부담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0(3), 42-76
- 홍지은·김매이·임용석(2016). 대학생들의 젠더인식에 따른 여가스포츠 구분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0(4), 95-111
- 홍지은·임용석(2018). 스포츠 속 구현된 젠더고정관념에 대한 소고: 성과 상반된 젠더유형 스포츠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6(2), 161-215
- Cockburn, C., & Clarke, G. (2002). "Everybody's looking at you!": Girls negotiating the "femininity deficit" they incur in physical educati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5(6), 651-665.
- Eastman, S. T., & Billings, A. C.(1999). Gender parity in the Olympics: Hying women athletes, favoring men athletes.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3(2), 140-170
- Evans, B. (2006). 'I'd feel ashamed': Girls' bodies and sports participation. *Gender, Place and Culture*, 13(5), 547-561.
- Hill, J. (2015). Girls' active identities: Navigating othering discourses of femininity, bodies and physical education. *Gender and Education*, 27(6), 666-684.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1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ROOM A (유튜브 생중계)

KBS 후원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공영방송, 공영방송의 미래

토론문

강보라(연세대)
서영주(KBS성평등센터)
오예진(연합뉴스)
정영희(고려대)



KBS후원 특별세션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공영방송, 공영방송의 미래” 토론문¹⁾

강보라(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2020 도쿄 올림픽은 여느 올림픽과 달랐다. 한 해 미뤄진 올림픽을 (미뤄지지 않은 척) 지켜보아야 했고, 관중 없는 경기에 적응해야했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더불어 올림픽과 같은 국가적 이벤트가 여전히 필요한 것인지 ‘올림픽 정신’을 기리는 것이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등의 질문이 덧붙여졌다. 4년마다 한 번씩 의례적으로 치러지는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라고는 하지만, 20세기를 넘어 21세기에도 올림픽의 ‘변함없는 가치’가 존재하는지 돌아보게 되기도 한다.

과거에 비해 쇠락한 올림픽 열기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의 올림픽 중계는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인기’ 스포츠 종목과 한국 선수의 메달 획득가능성이 높은 경기를 중심으로 방송 3사는 서로 큰 차이 없는 중계 편성을 선보였다. KBS의 경우, KBS 1과 KBS 2의 두 채널을 통해 나름의 차별성을 시도했지만, 종목의 인기여부와 메달 획득가능성과 전혀 관련 없는 중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²

이런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 스포츠, 젠더: 20~30대 여성 시청자들의 이용을 중심으로’는 2020 도쿄 올림픽을 전후로 젊은 여성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에 대한 성별화된 인식이 미디어 재현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가치를 비판적으로 재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현재의 단계에서 좀 더 명확해졌으면 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우선 ‘미디어에서의 스포츠 재현’의 범주 안에 어떤 부분이 포함되는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상파 방송의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장르와 관계 없이 ‘여성 스포츠 선수’의 재현을 다룰 것인지 아니면 전문 스포츠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운동하는 여성’의 재현을 다룰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분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스포츠 관람’에 대한 정의도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 관람(소위 직관)과 방송 중계의 시청은 ‘관람 경험’에 있어 여러 차원의 차이를 빚어낸다. 글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스포츠를 보는 것’을 즐겨한다고 밝히는데, 이것이 전자의 관람인지 후자의 관람인지 등(나아가 정기적 시청인지, 지상파 방송 이외의 다른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한 시청인지 등)에 따라 다른 맥락이 만들어질 수 있다.

1) 이 토론문은 ‘공영방송, 스포츠, 젠더: 20~30대 여성 시청자들의 이용을 중심으로’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들의 스포츠 경험이 미디어 시청 경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발견이다. 모집된 연구참여자들은 스포츠를 직접 하거나 스포츠경기 보기를 즐긴다고 밝히는데, 공통적으로 이들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기에 '체육선생님'과 같이 스포츠 하기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매개자를 만나 이들의 스포츠 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을 경험했고, 스스로 스포츠를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하겠다는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스포츠 하기의 경험이 스포츠 보기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를 들어 스포츠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게끔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이 청소년기에 스포츠 하기의 경험이 부재한 이들과는 다른 스포츠에 관한 인식이나 스포츠 보기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지 비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장 2절(미디어에서의 스포츠 재현의 문제점)은 지상파 방송, 그 중에서도 KBS의 스포츠 중계방송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2020 도쿄 올림픽 중계에만 한정해 보는 것과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출연하는 다른 예능 프로그램, 나아가 여성 연예인이나 일반인이 출연해 운동을 하는 다른 프로그램까지도 다 포함해 보는 것 간에 어떤 미디어 재현의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운동하는 여자'에 대한 자기재현이 증가하고, 소모임 플랫폼을 중심으로 함께 스포츠를 즐기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흐름들을 포함해 지상파 방송에서의 재현을 분석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인터뷰 분석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은 여전히 개별적인 서사가 담겨있어 흥미롭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송에서의 여성 재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지상파 방송과 같은 미디어의 재현이 사회구성적 효과가 있다고 전제하는데, 그 효과의 크기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황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미디어의 여성 재현'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타자적인 시선에도 영향을 끼치지만(그리고 이 부분은 본문의 인터뷰에서도 언급된다), 여성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하는지에 대한 주체적 시선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여성 선수의 참여율 50% 달성'이라는 2020 도쿄 올림픽의 목표는 낮설면서도 낮설지 않다. 여전히 그 정도의 비율에 다다르지 못하고 여성이 주변부적인 존재로 남는 영역이 많다는 현실을 되돌아볼 때, 이 목표는 낮설게 느껴진다. 다른 한편, 할리우드 영화산업과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벡델 테스트(Bechdel test)와 다양성 보고서를 앞 다투어 양산하는 경향성을 살필 때, 이 목표는 그리 낮설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와 별개로 여성과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조명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할당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마저 존재치 않는다면 비가시화된 영역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계적 할당을 넘어 재현의 다양성에 대한 문화적 당위를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 다양성의 차원에서 현세대의 문화자원을 발굴하는데 공영방송이 앞장서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KBS 후원 특별세션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공영방송, 공영방송의 미래” 토론문

공영방송 KBS 성평등센터의 역할과 과제

서영주(KBS 성평등센터장)

북경행동강령(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1995)은 미디어가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하고, 미디어가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이며, 미디어의 성차별적 젠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 제작 과정과 정책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세력화하는 것이 성주류화 전략임을 명시했습니다.

성평등을 위한 유럽기구(EIGE,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도 미디어 내용에서의 젠더 고정관념 문제, 미디어 인력구조와 성평등, 미디어 내 의사결정 구조와 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의 KBS 특별세션은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고, KBS 제작 현장에서의 젠더 편견과 불평등 문제 등 젠더 관점으로 KBS의 현재를 짚어보고, 향후 미래가치를 구현할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조수선 학회장님과 임원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발제를 해 주신 이종임 교수님의 “공영방송의 조직 문화와 젠더 이슈”, 정사강 박사님의 “공영방송, 스포츠, 젠더” 발제도 같은 맥락에서의 문제 제기라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KBS도 젠더 문제에 주목하고,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2020)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편 3-3 여성’에서 ‘기획과 편성 단계에서부터 성평등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갖고, 방송에서 특정 성(性)의 시각이나 관점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KBS ‘방송규범’은 ‘차별은 혐오를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방송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제작자는 차별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와는 달리 은밀히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여 차별의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KBS 성평등센터는 이러한 이념과 책무로 2018년 10월 사장 직속 상설기구로 국내 방송사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최초라는 무게감은 센터의 정체성과 역할, 성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가져옵니다.

센터는 성평등이 모든 업무의 크로스 커팅 이슈인 만큼 성평등 관점이 KBS 내 모든 업무의 기저에 깔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KBS의 성평등 플랫폼입니다. KBS 내의 여성부가 아닐까요?

센터는 크게 네 가지 역할로 사내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평등문화 조성에 관한 공적 책임의 이행, 임직원 등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평등 조직문화와 성차별 개선,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상담·조사를 수행합니다.

이처럼 공사업무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비록 조직은 작지만 그 영향력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KBS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 2020년 12월 기준으로 KBS 전체 임직원 4,550명 중 여성은 1,105명인 24.3%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보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은 낮아져 팀장급 이상 여성의 비율은 15.3%, 부서장급 이상 여성 비율은 8.7%로 과소대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KBS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0년부터 여성직위자 임용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기 KBS 이사회 이사 11명 중 여성은 1명에 그쳐,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방송 콘텐츠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성평등한 정책과 콘텐츠 도입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KBS 방송프로그램 중 젠더 이슈와 관련한 정부,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의 평가, 시청자위원회 등 내부 기관의 비평, 시청자 상담실 접수 민원, 센터도 필요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콘텐츠의 성차별 요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20년 시청자 상담실을 통해 접수된 의견 중 젠더 이슈와 관련된 내용(양성평등 취지의 기획 의도와 맞지 않은 예능프로그램의 내용 등)이 108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함으로써 높아진 시청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외부 모니터링 자료는 향후 콘텐츠 개발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나아가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내재화 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KBS 내부 정보망에 젠더이슈 톨아보기, 시식(視識)코너 등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성평등이 자연스럽게 KBS에 스며들도록 노력합니다.

넷째,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위해 공정한 사건 해결 시스템을 마

련하고, 사건 관련 상담, 조사 및 징계 요청,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을 통해 조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노동권이 존중받는 성평등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소 3주기를 맞은 성평등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KBS 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직진단을 통해 공사의 성평등 실태와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제작관행 실태 등을 파악하고 문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성평등 현황 상시모니터링을 위해 성인지 통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일·생활 균형 제도 등 젠더 이슈 현황과 통계 축적하고 이를 근거로 함께 소통하고 숙의함으로써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셋째, 젠더 이슈 발생시 관련 부서와의 협업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젠더 이슈 발생 직후 성평등센터로 정보를 공유하는 ‘젠더 이슈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성평등센터와 초기부터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수 있는 부서간 협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넷째, KBS의 젠더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언론기관, 학술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도 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어 미디어 제작 과정과 정책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세력화해 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성평등 관련 현안들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와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통해 공사가 제작하는 보도, 프로그램 등 콘텐츠의 제작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성평등 리더십 인재 육성을 통해 공사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십의 성인지 감수성과 마인드 구축에도 역점을 둘 것입니다.

KBS 후원 특별세션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공영방송, 공영방송의 미래” 토론문

오예진(전국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 위원/연합뉴스 영상미디어부 기자)

정사강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몇 가지 논점들 중 가장 공감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디어가 스포츠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을 악화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매우 공감합니다. 사실 성차별적 인식, 특히 여성의 능력이나 성취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스포츠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스포츠계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인식이 고착화하고 때로는 강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여성 스포츠인들을 표현하는 언어인데요, 정 교수님 연구 속 인터뷰에도 나온 것처럼 여성 스포츠인들은 그들의 능력이나 성취보다는 외모, 매력요소 등으로 표현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정, 여신, 미녀, 태극낭자 등인데요, 이런 한결 같은 표현들은 여성을 그들이 가진 기량이나 선수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한낱 성적 대상이나 스포츠라는 큰 무대의 주변인, 장식적 요소 등에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언론인들 대부분 이런 언어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여성이고 언론사에서 10년 이상 기자로 재직해왔지만 최근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듣던 표현이고, 언론사에 입사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됐던 단어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언론환경적으로는 스포츠 보도 자체가 남성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해온 구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 교수님 발제문에 보면 “여자 경기를 남자가 중계하는 건 봤어도 남자 경기를 여자가 중계하는 건 못 봤다”라는 인터뷰 사례가 나오는데, 보도국 내에는 여자 스포츠부장이 있는 곳이 아마 없을 겁니다. 있다고 해도 연예, 문화 분야를 함께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스포츠 분야는 여전히 남성 기자들에 의해 취재와 보도가 이뤄지고, 연령대가 높은 남성 기자들이 최종 기사를 송고할 이른바 데스크 권한을 가진 것이 일반적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상 단시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구조고요,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보도윤리 준칙처럼 젠더 보도 준칙 같은 것을 언론사가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성차별적 언어 사용을 지양하고, 여성 스포츠인과 관련한 보도 비중을 남성 스포츠와 동등하게 맞춰가야 한다는 등의 보도 준칙 도입이 없이는 단시간에 현재와 같은 관행은 쉽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종임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공영방송사 조직문화와 젠더이슈’도 앞서 말씀드린 맥락에서 풀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방송사 보도국이나 일간지 편집국, 언론사라는 조직 자체가 그 탄생에서부터 현재까지 남성 대표와 남성 임원들에 의해 탄생하고 만들어지고 형성돼 왔습니다.

2017년 미투 사건이나 현 정부 들어서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기조 등의 영향으로 일부 언론사들이 임원직이나 편집국장 등에 여성을 기용하고 있지만, 이는 구색 맞추기 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직은 남성이 언론사 경영권과 보도국 내 편집권 등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소위 말하는 젠더 감수성은 종종 매우 하찮거나 아니면 아직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굉장히 진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변화를 하기 거부하거나 아니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은 하고 있지만 선뜻 그것을 먼저 도입하기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기자생활에서 굉장히 롤모델로 삼고 싶은 남성 선배가 있었습니다만, 이 선배가 제 기사를 봐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활동가’라고 썼더니 굳이 ‘활동가’ 대신 ‘할머니’라고 수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유는 ‘할머니’라는 표현이 아직은 사회적으로 익숙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라는 사회적 직함이 존재하는데 굳이 그것을 없애고, 사적이고 가족적인 호칭으로 부르면서 공식적인 지위를 박탈하는 언어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검사, 여배우 등 굳이 여성을 강조하는 언어도 그렇고요.

언어 선택이 아니더라도 여성 정치인을 표현할 때는 ‘날카롭거나 쏘아보는 눈빛’,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 패션에 대한 평가와 해석 등으로 점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 여성에 대해서는 ‘김치녀’, ‘된장녀’ 등을 언론이 인용의 형식을 빌어 그대로 받아썬 사례도 수없이 많았죠.

최근에는 ‘페미니즘’을 ‘남성혐오’와 동일시해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의미가 담긴 인터넷상의 용어

‘페미’도 많은 보도에서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듯 보입니다.

모든 언론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보도 행태를 고치려고 현장에서 노력하는 기자와 피디들도 많습니다. 다만 이런 노력이 끝까지 관철되지 않는 것은 역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영구조나 남성중심적 문화가 굳게 자리잡은 언론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언론사들이 젠더데스크를 도입하거나, 성평등센터 성평등위원회 등을 도입해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언론노조에서도 지난해 성평등위원회를 처음 출범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소개해주셨듯이 성평등위원회에서는 세계신문협회 성평등 프로젝트 일환으로 ‘위민인뉴스’가 발간한 ‘미디어를 위한 젠더 균형 가이드’라는 양성평등 보도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단순히 발간하는 데에만 그친 것은 아니고 이 책자를 가지고 여가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기자들을 교육하는 동영상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있고요. 성평등위원회에서도 각 언론사 지부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 발표를 통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현장에서 일한 지난 10년간 굵이굵이에 서 그리고 보도국 곳곳에서 느껴오던 문제점들인데, 언론계 외부에서 특히 학계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주셔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토론은 두 분 교수님 의견에 반대하거나 비판하기보다 매우 동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KBS후원 특별세션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공영방송, 공영방송의 미래” 토론문

공영방송의 조직문화와 젠더 이슈 - 여성 프로듀서의 조직에 대한 인식과 종사자로서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정영희(고려대)

공영방송사의 조직 및 조직 문화에 관한 연구는 KBS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중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온 주제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그 논의에서 논점을 ‘여성 및 젠더’의 관점으로 확장시킨 의미있는 분석으로 판단된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최근 몇년동안 KBS의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이전에 비해 성 젠더의 문제에 섬세해진 면이 있다. 또한 text가 최종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노력해 온 구성원들의 고민의 흔적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text에서의 변화가 text를 만든 조직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언론을 지향한 KBS의 노력이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은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목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이고, 외부인은 알기 어려운 ‘조직문화와 젠더이슈’ 분석은 그 경계에선 분석가, 즉 본 연구를 추진한 발제자가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KBS가 타인을 위한 역할과 봉사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웠던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게 한 점에서 적절한 주제라고 판단된다.

다만, 연구자가 이 분석을 논문으로 확장시킬 경우를 대비하여 두어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토론자가 보았을 때, 이 분석에서는 조직의 문제와 조직 내에서의 여성 및 젠더 이슈가 겹쳐져 있다고 판단된다. (성별과는 무관한) ‘조직문화 및 조직 구성원’의 문제와 ‘여성’ 조직구성원이기 때문에 놓이게 상황을 명료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젠더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위계의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PD로서의 문제에서 ‘여성’ PD이기 때문에 경험한 사례를 뽑아서 밀도 있게 분석하면

좋은 논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둘은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밀접하게 얽혀있지만 KBS의 조직 문화를 살피는데 '젠더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면 과감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이론적 논의, 분석결과제시 모두에서 전문직업인(PD)로서의 것과 '여성'전문직업인으로서의 것을 구분하시기를 조언 드린다.

두 번째는 연구자의 발견을 보다 돋보이게 배치 기술하실 것을 추천드린다. 현재는 분석결과가 기존 연구자의 결론을 뒷받침(증언)하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연구자의 분석은 과감하게 이론적 논의/선행문헌검토로 옮기고, 연구자의 분석을 전면에 배치하여 이번 분석의 특징을 잘 해석해내시기를 조언드린다.

2018년 출범한 KBS의 <성평등센터>가 KBS에서 외부로 향하는 시선(프로그램)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KBS 내부 구성원들이 성평등한 환경에서 '전문인력'으로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힘을 얻기를 바란다.

공영방송, 스포츠, 젠더 : 20·30대 여성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스포츠 영역에서 기존의 성별화된 구조와 미디어의 성차별적 재현 양상을, 페미니즘 리부트의 영향을 경험하고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20 30대 여성 시청자 3명의 경험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분석에 앞서 연구자는 전통적으로 스포츠 영역에서는 종목 뿐 아니라 참여(선수로서, 관중으로서)자체에서도 여성이 차별받아온 역사를 개괄하였다. 또한 공식 게임에서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운동장의 주인은 남성'이라는 인식하에 여성의 스포츠 활동은 남성의 '허용'이 필요했거나 혹은 여성이 스스로를 배제시켜 온 상황을 잘 설명했다.

스포츠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로서 스펙타클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 이벤트를 시 공간적으로 확장시키며 관중을 초대하는 핵심 장치가 바로 매스미디어이다. 이 연구는 그 미디어의 스포츠 재현, 특히 성차별적으로 구현되는 미디어 메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스포츠와 여성(혹은 젠더)에 대한 연구자의 문제의식은 스포츠와 스포츠를 재현하는 미디어의 관계, 나아가 스포츠와 그 재현에 대한 20 30대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와 여성'의 문제는 미디어 재현에 몰입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연구는 20 30대 스포츠 이벤트 및 미디어 소비자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매우 신선하다. 좋은 논문으로 완

성되기를 바라며, 토론자로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또한 KBS가 성평등한 미디어 콘텐츠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그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분석 속에 담긴 발제자의 의도를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몇 가지 제언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가능하다면 인터뷰이 수를 더 늘일 것을 추천한다. ‘페미니즘 리부트를 경험하고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스포츠에 관심있는 20 30대’에 초점을 맞춘 이 분석은 문제를 인식 각성하여 향후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유용하나, ‘스포츠와 여성’(및 미디어 재현)의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20 30대 여성의 시선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역 선수로 활동했던 인터뷰이를 포함할 것을 추천한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영역은 분명 서로 차별적이기 때문에 현역 경험자를 포함한다면 보다 심도있고 쫄쫄한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2020 도쿄 올림픽’에 대한 KBS 보도를 그 20 30대는 어떻게 보았는지, 구체적 사례를 든다면 연구자의 메시지가 독자에게 더 설득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영방송 KBS가 향후 스포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고려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KBS의 ‘Documentary 국가대표 Sports Women’은 개인적으로도 흥미롭게 본 콘텐츠이다. 토론을 위해 한번 더 보았는데, 본방 시청 때와 유사한 감정을 느꼈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심도있게 다가왔다. 페미니즘 백래시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일상의 사소한 몸짓도 소위 ‘페미 논쟁’에 휘말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한 KBS의 실천은 용기있는 행동으로 보이며 감사를 표한다.
이 프로그램을 사례로 든 발제자의 의도를 들여다보며, 성평등한 스포츠 혹은 스포츠(인) 재현을 위해 KBS에 기대하는 바를 정리하며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①여성 스포츠(인)에 대해 보도 혹은 방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② 왜곡되지 않게 보여주며(‘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전문인’으로서 초청하고 소비할 것) ③ ‘여성적’이라고 인식된 종목 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을 고루 다루고 ④ 여성과 스포츠의 관계에 관한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실행하는 것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언론학자, 미디어 비평가들은 외부에서의 활동을 통해 KBS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이전에 인터뷰했던 한 언론인의 표현을 빌리면 ‘언론사 내부에서 추진하는 개선 개혁의 시도는 많은 난관에 부딪히지만, 외부의 지적 조언은 언론사의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에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 성평등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KBS의 노력을 지지하며, 시청자 또한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힘을 받기를 바란다.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